

오패산 자락길 ③

보행약자도
산림욕을 즐기자!



걷는구간	주공4단지 408동 앞 정류장→ 강북구민운동장 좌측→강북구민운동장 좌측 쉼터→강북구민운동장 뒤편(죽구장) →쉼터→금호아파트 뒤편 자작나무숲→ 숲놀이터→오동근린공원 유아숲체험장 →오동근린공원 실내배드민턴장 또는 변동주공5단지 508동(종점)
걷는거리	1.5km
소요시간	30분
추천시기	사계절
난이도	★ 초급코스

서울 각 지자체에서는 언제부터인가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휴식을 위해 근교산에 ‘무장애숲길’을 조성하는 것이 유행이다. ‘무장애숲길’이란 지역에 있는 여러 산들 중에 경사가 완만하고 접근성이 뛰어난 곳을 선정해 노약자나 아이들은 물론, 휠체어나 유모차를 끌고 오를 수 있도록 정비한 자락길을 일컫는다. 이런 나비효과와 바람을 타고 드디어 2016년 강북구에도 무장애숲길이 생겼으니, 그 주인공이 ‘오패산 자락길’이다.

강북구 미아동과 변동 사이에 위치한 123m높이의 오패산은 도심 한복판에 있으면서도 자연 생태가 잘 보존되어 있으며 산책로, 운동 시설, 숲체험장 등이 잘 갖춰져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사랑을 받는 곳이다. 기존 산책길과 연계하여 총 2km에 이르는 ‘오패산 자락길’을 조성하면서 강북구민운동장 주변 734m 구간과 오동실내배드민턴장 주변 586m 구간, 즉 1.32km 구간에 나무데크를 설치하여 무장애숲길을 만들었다.

1.32km의 자락길 구간은 휠체어나 유모차 바퀴가 빠지지 않도록 나무데크가 촘촘히 깔려있고 경사가 10도 이내로 평탄하여 노인, 어린이, 유아, 임산부, 장애인 등 보행약자도 아무런 불편 없이 무작정 걸으며 산림욕을 즐길 수 있다. 게다가 ‘무장애 자락길’이라는 이름답게 쉼터에는 전동휠체어 충전기를 설치하였고 나무데크를 따라 쪽



이어진 손잡이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표시판도 부착해놓았다.

30분 정도의 짧은 코스이지만 워낙 숲이 울창하고 놀 거리가 풍부하여 남녀노소 누구나 알찬 휴식을 누릴 수 있다. 복자기나무숲, 자작나무숲 등 각기 다른 숲길이 속속들이 나타나고 중간에서 만나는 작은 계곡에서는 희미하게나마 물소리가 들리기도 한다. 특히 오동근린공원 구간에는 유아숲체험장이 있어 아이들이 자연 속에서 맘껏 뛰어놀며 다양한 숲 체험을 할 수 있다.



자락길 쉼터에는 경치를 바라보며 쉴 수 있는 벤치나 테이블뿐만 아니라 숲 속 독서를 즐길 수 있도록 북카페 도서관 책장을 설치해 놓았다.



유아숲체험장

☞ 지하철 4호선 수유역 3번 출구로 나와서 강북구청 정류장에서 강북09, 강북11번 버스로 환승 후 강북구민운동장 4단지 정류장에서 하차한다.

☎ 02-901-6923 강북구청 공원녹지과

① 이용시간 제한 없음 / 주차 시설 별도로 없음 / 화장실 강북구민운동장에 있음 / 유모차와 휠체어 이용 가능 / 애견 출입 가능(목줄 사용)

